

##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개관

# The Roles of Religion in Family Life: A Research Review

김성은 (Seong-Eun Kim)\*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religion in family life through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on religion and families and to propose future research agenda. Specifically, 41 empirical research on religion and families publish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journals between 1999 and 2016 were selected and topic areas, samples, measurements of religiosity, religious experiences investigated, research models, and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studies were reviewed. The research studies explored various topics including marriage preparation,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family relationships, and family functioning. However, a significant number of research had some flaws in sampling, measurements of religiosity, or research model, and some did not follow analytical procedures rigorously. Consequently, understanding of how religion influences family life and shapes the experiences of families was limited. Using this review of the empirical research and the majo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ddressed in the scholarship of religion and families in the West as a backdrop, this study discusses the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and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dvancement required to better elucidate the linkage between religion and families in Korea.

**Key Words :** religion, spirituality, families, marriage, marriage preparation

---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Sungkyunkwan University),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healthyfam@skku.edu

2017년 08월 01일 접수, 09월 02일 최종수정, 09월 17일 게재확정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의 삶과 가족생활에서 종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회조사 결과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갤럽조사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에 각각 44%, 49%, 47%, 54%, 50%로,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4%포인트 감소하였지만 1984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6%포인트 증가하였다(한국갤럽 2015: 17). 그리고 2014년에 종교를 믿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한 응답자들은 전체의 59%를 차지하였고, 불교인의 67%, 개신교인의 84%, 천주교인의 73%가 그렇다고 하여 종교는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한국갤럽, 2015: 39). 또한 응답자와 모친의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은 1984년과 2014년에 불교인들에게 82%와 82%, 개신교들에게 43%와 56%, 천주교인에게 40%와 46%로 나타나 가족 내에서 세대 간 종교의 전승이 높았다(한국갤럽, 2015). 이러한 결과들은 종교는 한국인의 삶과 가족생활을 탐색하는데 간과될 수 없는 요소이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심도 깊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 종교 활동에의 참여, 종교적·영적 자원 등은 가족생활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Mahoney, 2010). 첫째, 종교적 신념이나 가르침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개인, 가족, 사회 및 영적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이는 가족기능이나 가족관계의 역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ahoney, 2005; Mahoney et al., 2003; Silberman, 2005). 기독교에서는 부모역할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거나 자녀양육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경험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과정으로 바라보는데(Bartkowski & Elison, 1995), 유아기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양육을 성스럽게 바라볼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언어적으로 덜 공격적이고 신체적 폭력의 사용빈도가 낮았다(Mahoney et al., 2003). 불교에서는 인간의 치열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경지에의 도달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은 전반적인 양육능력도 높았다(김혜순, 2009). 그런데 종교적 신념은 가족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가족 간 종교적 신념의 불일치는 가족 갈등을 유발하고 가족관계의 단절이나 소원을 초래하기도 한다(송현동, 2008; 이정덕·전미경, 1995). 둘째, 예배나 교리 탐구의 참여,

교회에서 주도하는 봉사활동에의 참여, 명상, 수행 및 기도 등의 종교활동 참여는 가족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한내창, 2001). 기독교를 믿는 부부나 연인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친밀감과 관계 헌신도가 높았고(Fincham & Beach, 2014), 불교를 믿는 어머니의 신행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김혜순, 2007). 셋째, 종교적 자원은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의 적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변경애·김순옥, 1999; Pargament et al., 2005). 기독교 신앙이 있는 재혼한 부모와 자녀들은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영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심리적 적응을 도모하였고(김형민·이은경, 2016),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은 종교성이 높을수록 자녀학대와 자녀에 대한 신체적 공격의 위험이 낮았다(Wiley, Warren, & Montanelli, 2002).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개인, 부부, 부모 혹은 자녀 등의 표본을 사용하여 종교 변인과 가족 변인 간의 관계 또는 종교가 가족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향후 다양한 가족생활 영역들에서 종교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판된 연구들의 주제, 표본과 연구대상, 종교의 개념, 종교성의 측정,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표본과 표본추출방법, 종교성의 측정과 같은 방법론은 연구결과와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적 고찰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까지 가정학분야에서 출판된 가족 연구들에서 사용된 종교변인을 검토한 변경애와 김순옥(1999)의 연구를 제외하고 출판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고찰한 논문은 부재하다.

서구에서는 종교와 가족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연구들(Mahoney, 2005, 2010; Mahoney et al., 2001; Thomas & Cornwall, 1990)을 지속적으로 출판해왔는데, 이는 종교와 가족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진보를 이뤄왔다. 미국 가족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는 각각 1990년과 2010년에 1980년대와 2000년대에 동료심사 학술지에 게재된 가족과 종교에 대한 연구 논문들의 출판경향, 주제, 방법론적 쟁점, 연구결과들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한 논문들(Mahoney, 2010; Thomas & Cornwall, 1990)을 출판하였다. 또한 가족심리학의 대표 학술지인 *Journal of Family Psychology*는 2001년에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출판된

종교와 가족에 대한 양적연구들의 메타분석 연구(Mahoney et al., 2001)를 출판하였는데, 이 논문은 종교성이 이혼, 전반적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가정폭력, 가족기능, 양육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제시하고 종교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복합적인 역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국 사회학의 주요 학술지인 Journal of Social Issues도 2005년에 종교와 부부 및 부모자녀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고 임상적 적용과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한 논문(Mahoney, 2005)을 출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종교와 가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개관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족생활의 어떤 영역들에서 종교의 역할이 탐색되었고, 어떤 표본과 어떤 측정도구들이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주요 연구결과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검토 논문의 선정

검토 논문의 선정을 위해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국회도서관 등의 목록에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경험적 연구들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이에선 종교를 가진 개인, 부부,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종교 변인과 가족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한 양적연구, 종교가 가족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한 질적연구, 종교 변인을 도입하지 않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생활의 특성을 탐색한 실태조사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통일교 등과 같이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였다. 또한 가족생활은 발달적 접근에 기초해 가족의 상호작용과 관계 및 가족과정 연구에 초점을 두는 가족학 분야(한국가족상담연구소, 2010)에서 다루는 가족생활을 의미하였다. 이에선 가족유형, 가족성립과 적응, 가족관계, 가족역할, 가족권력, 의사소통, 가족생활만족, 가족위기와 해체, 가족정책 등이 포함된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9). 그리고 발달단계 상으로 결혼준비, 결혼, 영유아기자녀 가족, 학령기

자녀 가족, 청소년기자녀 가족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연구들을 포함하였고 노년기 가족 연구는 제외하였다. 종교를 가진 노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노인 개인의 발달, 심리,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적응, 죽음 등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 포함될 수 있는 가족연구가 거의 전무하였다. 한편 1999년 이전에 출판된 가족학 분야 논문들 중 종교변인을 도입한 연구들에 대한 문헌고찰연구(변경애·김순옥, 1999)가 이미 출판되어 본 연구는 1999년 이후에 출판된 논문들만을 검색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과 환자 가족과 같은 특수한 맥락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1999년 이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장애인 연구들 중 종교가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는 총 2편으로 검색되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전공역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족학, 교육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상담학, 신학, 심리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종교학, 청소년학 등의 신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 영역에서 해당 연구논문들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종교와 영성을 구분되지만 연결된 개념으로 접근하여 영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종교와 영성이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김동기, 2013). 대표적인 예로 종교심리학에서 종교와 영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온 Pargament와 동료들(2013)의 접근이 있는데, 이들은 영성을 성스러움의 추구, 종교를 영성도모가 주 목적인 종교적 전통이나 맥락 내에서 의미추구로 정의하여 종교를 영성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이들은 종교생활의 핵심은 영성이고 종교기관은 기관 구성원들이 성스러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교적 의식 및 예배에의 참석, 종교경전의 탐구, 종교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종교적 선의 추구 등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영성은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고 하였다(Mahoney, 2010; Pargament et al., 2013).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성과 가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영성을 기독교, 천주교 등의 특정 종교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어(김덕일·송원영, 2011; 신승범, 2012) 영성이 종교와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영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도 검색대상에 포함하였다.

## 2. 검색 어휘

연구논문의 검색을 위해 검색항목 전체, 주제어, 논문명, 저자, 초록 중 검색항목 전체에 가족생활을 표현하는 ‘가족’, ‘배우자 선택’, ‘결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모역할’, ‘남편’, ‘아내’, ‘아버지’, ‘자녀’, ‘양육’, ‘가족기능’, ‘의사소통’, ‘상호작용’, ‘폭력’, ‘이혼’, ‘재혼’, ‘한부모’ 등의 검색어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 ‘종교성’, ‘영성’ 혹은 ‘신앙’과 각각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 3. 분석 준거

국내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에 미국의 동료심사 학술지에 게재된 종교와 가족에 대한 184편의 연구들을 검토한 Mahoney(2010)의 ‘Religion in families, 1999-2009: relational spiritual framework’와 국내의 종교와 성에 대한 44편의 양적 연구들을 고찰한 한내창(2007)의 ‘종교와 성태도·성행동의 경험적 연구들에 관한 국내의 연구 개관’에서 사용한 분석준거를 참고하였다. Mahoney(2010)는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을 연구영역 별로 분류하고 영역에 따라 상세 연구주제를 구분하여 연구결과와 방법론적 한계점들을 논의하였다. 한내창(2007)은 표본과 척도를 중심으로 연구들의 조사방법을 살폈고, 종교성 척도와 성행동·성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을 연구영역 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상세 연구주제,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주요 연구결과 및 한계점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1) 연구영역

연구영역은 Mahoney(2010)의 분류에 기초하여 가족형성 준비, 결혼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모역할과 양육,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가족관계 전반, 가족기능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는 Mahoney(2010)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분류목록에 추가하였다.

## (2) 상세 연구주제

상세 연구주제의 분류를 위해 Mahoney(2010)의 21개 상세 연구주제들을 사용하였고 21개 주제들 중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 탐색되지 않은 상세 주제들을 제외하였고 우리나라에서만 연구된 상세주제들(예, 양육불안, 부모역할지능, 가족강인성, 종교기반 프로그램 등)은 목록에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상세 연구주제는 배우자선택,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 결혼준비 프로그램, 결혼만족, 부부평등, 부부관계 전반, 결혼과 부부적응 및 갈등, 결혼여정, 부모자녀의사소통, 부모자녀만족도, 부모자녀갈등, 양육태도,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 및 불안, 부모역할지능, 재혼적응, 가족강인성, 가족적응, 이혼의도, 결혼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기능의 22개로 분류되었다.

## (3)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표본추출방법의 분류를 위해 한내창(2007)이 사용한 분류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이은혜·이미리·박소연, 2006)을 사용하였다. 양적조사연구들은 학률표집과 비확률표집으로 구분하였고, 비확률표집은 편의표집, 목적표집, 눈덩이표집으로 분류하였다. 양적실험연구들은 연구설계에 있어 진실실험설계인지 준실험설계인지를 파악하였고, 준실험설계연구들은 피험자들을 무선택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 비무선택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질적연구들의 표집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질적연구들에서 빈번히 사용되어온 편의표집과 눈덩이표집(나장함, 2012)으로 분류하였다.

## (4)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양적연구에서 사용된 종교성의 측정과 질적연구에서 사용된 종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들을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한내창(2007)의 연구에 기초해 연구양적연구에서 어떤 종교 변인과 종교 변인의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는지, 질적연구에서 종교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 (5) 주요 연구결과

Mahoney(2010)의 분류에 기초해 각 연구 영역 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 기술에 있어 종교적 특성과의 연결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 중 천주교표본 연구가 1편, 불교표본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나 충분한 논의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III. 연구결과

#### 1. 종교와 가족 연구 개요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총 41편이었고, 41편 연구들의 연구영역, 상세 연구주제,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영역

종교와 가족에 대한 연구들에서 종교의 역할은 가족형성 준비(N=5, 12.2%), 결혼과 부부관계(N=10, 24.4%), 부모자녀관계,(N=4, 9.8%), 부모역할과 양육(N=13, 31.7%), 가족스트레스와 적응(N=6, 14.6%), 가족관계 전반<sup>1)</sup>(N=2, 4.9%), 가족기능(N=1, 2.4%)의 7가지 가족생활 영역에서 탐색되었다. 부모역할과 양육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출판되었고, 그 다음으로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출판되었다. Table 1에 연구 영역과 영역 별 상세 연구주제와 출판된 논문 편수를 제시하였다.

Table 1 Areas and sub-areas of research and the number of research (N=41)

| Areas of research    | Sub-areas of research                  | N |
|----------------------|----------------------------------------|---|
| Marriage preparation | Mate selection                         | 2 |
|                      | Interreligious marriage permissiveness | 1 |
|                      |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 2 |

<continued>

1)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는 한 논문에서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함께 살핀 연구를 의미한다.



| Areas of research                 | Sub-areas of research                        | N |
|-----------------------------------|----------------------------------------------|---|
|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 Marita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 2 |
|                                   | Marital equality                             | 1 |
|                                   | Marital relations general                    | 2 |
|                                   | Marital adjustment and conflict              | 4 |
|                                   | Marriage journey                             | 1 |
| Parent-child relationship         | Parent-child communication                   | 2 |
|                                   |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 1 |
|                                   | Parent-child conflict                        | 1 |
|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 Childrearing attitude                        | 2 |
|                                   | Parental role satisfaction                   | 1 |
|                                   | Childrearing stress and anxiety              | 5 |
|                                   | Parenting efficacy                           | 1 |
|                                   | Directions of Christian education            | 1 |
|                                   | Parenting style                              | 1 |
|                                   | Christian parenting perception and practices | 1 |
|                                   | Parental role intelligence                   | 1 |
|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 Adjustment process of remarried families     | 1 |
|                                   | Family hardiness                             | 2 |
|                                   | Family adjustment                            | 1 |
|                                   | Divorce intention                            | 1 |
|                                   | Marital satisfaction                         | 1 |
| Family relationships              |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 1 |
|                                   | KDF characteristics                          | 1 |
| Family functioning                | Family functioning                           | 1 |

## (2) 상세 연구주제

각 영역 별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된 상세 연구주제는 다양하였다. 가족형성 준비 영역의 연구들은 배우자선택(N=2),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N=1), 기독교 혹은 비종교 기반 결혼준비프로그램의 효과성(N=2)에 대해 탐색하였다. 결혼과 부부관계 영역의 연구들은 결혼(불)만족(N=2), 부부평등(N=1), 부부관계 전반(N=2), 결혼과 부부적응 및 갈등(N=4), 결혼여정(N=1)에 대해 탐색하였다. 부모자녀관계 영역의 연구들은 부모자녀의사소통(N=2), 부모자녀만족도(N=1), 부모자녀갈등(N=1)을, 부모역할과 양육 영역의 연구들은 양육태도(N=2), 부모역할만족도(N=1), 양육스트레스 및 불안(N=5), 부모효능감(N=1), 기독교부모교육의 방향성(N=1), 자녀양육 스타일(N=1), 기독교 자녀양육 인식과 실천(N=1), 부모역할지능(N=1)에 대해 탐색하였다.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영역의 연구들은 재혼적응과정(N=1), 가족강인성(N=2), 가족적응(N=1), 이혼의도(N=1) 및 결혼만족도(N=1)을, 가족관계 전반 영역의 연구들은 가족관계만족도(N=1)와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N=1)을, 가족기능 영역의 연구는 가족기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 (3)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모든 연구들의 연구 영역 별 연구들의 표본추출방법과 표본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양적조사연구 25편 중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확률표집을 한 연구가 1편, 비확률표집 중 목적표집, 편의표집, 눈덩이표집을 사용한 연구가 각각 15편, 4편, 1편이었다. 그리고 표집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연구가 4편이 있었다. 실험연구 6편은 모두 비무선할당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질적연구 10편 중 편의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사용한 연구가 각각 4편과 6편이었다.

표본을 종교 별로 보면 총 41편의 연구 중 기독교표본 연구가 32편, 통일교표본 연구가 1편, 불교표본 연구가 3편, 천주교표본 연구가 1편, 기독교와 불교 혼합표본이 1편, 기독교, 불교, 천주교 혼합표본이 1편,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 혼합표본이 1편, 종교와 무교 표본이 1편이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영역 별 표집방법과 표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형성 준비에 대한 연구들 중 한 편의 연구가 확률표집법으로 전국의 성인표본(한대창, 2012)을, 나머지 연구들은 비확률표집법으로 기독교나 통일교 기독교 미혼 청년표본을 추출하였다. 후자의 연구들은 전문대학교 재학 중인 통일교 대학생들(문선애, 2012)과 대전(김광률·정현희, 2001)과 K시의 3개 교회들(경동진·조윤옥, 2014)에서 미혼 청년들을 표집하였다. 한 편의 질적연구(우원규·김수연, 2015)는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종교적 신념이 있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미혼 여성을 표집하였다.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들 중 양적연구들은 목적표집이나 편의표집을 사용하여 기독교 부부나 기독교 여성을 표집하였다. 대전의 교회에 출석하는 부부(서동진, 2005), ENRICH 검사를 받은 기독교 부부(김덕일·송원영, 2011), 신학생 부부(김승희·김은영, 2014) 혹은 서울 K교회의 여성리더(조혜정, 2012)를 연구하였다. 질적연구들은 편의표

집이나 눈덩이표집을 통해 대학졸업 이상의 종교성이 일정정도 이상인 30-40대 기혼여성(이수인, 2007), 부교역자 아내(김애란·류혜옥, 2013),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집사 직분 이상인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부부(백정미, 2014), 중년기 목회자 아내(오정미·조성희, 2016),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기독교 기혼여성(심은정, 2014)을 표집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진, 2011)도 있었다.

Table 2 Areas of research, authors, sampling method, and sample (N=41)

| Areas                             | Authors                                    | Sampling method  | Sample                                                              |
|-----------------------------------|--------------------------------------------|------------------|---------------------------------------------------------------------|
| Marriage preparation              | Kim, K.Y. & Chung, H.H.(2001)              | Nonrandom        | 12 Christian premarital couples                                     |
|                                   | Moon, S.A.(2012) <sup>1)</sup>             | Convenience      | 80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Sunmoon University                  |
|                                   | Han, N.C.(2012)                            | Probability      | 1482 national sample from KGSS data                                 |
|                                   | Kyoung, D.J. & Joe, Y.O.(2014)             | Nonrandom        | 20 Christian single recruited via 3 churches                        |
|                                   | Woo, W.K. & Kim, S.Y.(2015) <sup>2)</sup>  | Snowball         | 24 Christian, Buddhist and Catholic single women                    |
|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 Seo, D.J.(2005)                            | Purposive        | 139 Christian couples of adolescent children recruited via churches |
|                                   | Lee, S.I.(2007) <sup>2)</sup>              | Snowball         | 15 married Christian women                                          |
|                                   | Kim, K.J.(2011) <sup>2)</sup>              | Snowball         | 12 middle aged Christian couples                                    |
|                                   | Kim, D.I. & Song, W.Y.(2011)               | Convenience      | 815 Christian couples who took ENRICH inventory                     |
|                                   | Cho, H.J.(2012)                            | Convenience      | 228 middle aged Christian female leaders recruited via K church     |
|                                   | Kim, A.R. & Rhew, H.O.(2013) <sup>2)</sup> | Convenience      | 8 Christian wives of junior pastors recruited via H church          |
|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 Kim, S.H. & Kim, E.E.(2014)                | No detailed info | 100 Christian couples recruited via seminaries                      |
|                                   | Paik, J.M.(2014) <sup>2)</sup>             | Snowball         | 20 middle aged Christian couples                                    |
|                                   | Shim, E.J.(2014) <sup>2)</sup>             | Snowball         | 2 Christian married women                                           |
|                                   | Oh, J.M. & Cho, S.H.(2016) <sup>2)</sup>   | Snowball         | 7 middle aged Christian wives of pastors                            |

<continued>

| Areas                          | Authors                         | Sampling method                                                                             | Sample                                                                                      |
|--------------------------------|---------------------------------|---------------------------------------------------------------------------------------------|---------------------------------------------------------------------------------------------|
| Parent-child relationship      | Park, I.K.(2007)                | Convenience                                                                                 | 187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1 church                                            |
|                                | Oh, T.K. & Kwon, K.K.(2011)     | Snowball                                                                                    | 145 Christian mothers and their 145 adolescent children recruited via 9 churches            |
|                                | Lee, Y.H. & Park, J.H.(2011)    | Purposive                                                                                   | 292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10 churches                                         |
|                                | Cho, H. J.(2015)                | Purposive                                                                                   | 269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churches                                            |
|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 Chung, K.S.(2004) <sup>1)</sup> | Purposive                                                                                   | 555 Christian parents recruited via Christian organizations                                 |
|                                | Kim, H.S.(2007)                 | Purposive                                                                                   | 561 Buddhist parent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8 Buddhist preschools                    |
|                                | Kim, K.H. & Lee, B.S.(2009)     | Purposive                                                                                   | 190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recruited via preschools                                  |
|                                | Kim, H.S.(2009)                 | Purposive                                                                                   | 172 Buddhist mother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5 preschools                             |
|                                | Hwang, O.J.(2009)               | Nonrandom                                                                                   | 26 Buddhist mothers of preschoolers                                                         |
|                                | Chung, H.J.(2011) <sup>2)</sup> | Convenience                                                                                 | 29 Christian mother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3 Christian preschools                   |
|                                | Shin, S.B.(2012)                | Purposive                                                                                   | 570 Christian parent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20 Korean Evangelical Holiness Churches |
|                                | Chung, I.S. & Chang, E.J.(2012) | Nonrandom                                                                                   | 49 Christian parents with school aged children recruited via 1 church                       |
|                                | Chung, H.J.(2013)               | Nonrandom                                                                                   | 16 Christian North Korean defectors recruited via 1 church                                  |
|                                | Kim, S.W.(2015)                 | No detailed info                                                                            | 252 Christian parents over age 20                                                           |
|                                | Lee, S.H.(2015) <sup>2)</sup>   | Convenience                                                                                 | 3 Christian mothers who completed a parenting education                                     |
|                                | Park, A.K.(2016)                | Purposive                                                                                   | 111 Catholic mother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4 catholic churches and 5 preschools     |
| Bae, E.J.(2016)                | Purposive                       | 202 Christian fathers of school aged & adolescent children recruited via schools & churches |                                                                                             |

&lt;continued&gt;

| Areas                        | Authors                                   | Sampling method  | Sample                                                                                                         |
|------------------------------|-------------------------------------------|------------------|----------------------------------------------------------------------------------------------------------------|
|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 Jeon, J.S.(2007a)                         | Purposive        | 406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middle and high schools                                                |
|                              | Jeon, J.S.(2007b)                         | Purposive        | 969 Canadian, Korean Canadian, Korean adolescents recruited via 14 high schools                                |
|                              | Lee, H.K.(2008)                           | No detailed info | 70 Korean Americans, 153 Koreans                                                                               |
|                              | Yoo, H.S. & Song, J.A.(2009)              | Purposive        | 288 Christian and Catholic adults contemplating divorce recruited via shelters and counseling service agencies |
|                              | Chang, S. & Kim, S.A.(2012)               | Nonrandom        | 22 Christian victims of wife abuse recruited via social service agencies                                       |
|                              | Kim, H.M. & Lee, E.K.(2016) <sup>2)</sup> | Convenience      | 10 Christian mothers and adolescent from remarried families recruited via 1 church                             |
| Family relationships         | Byun, K.A. & Kim, S.O.(2001)              | Purposive        | 1110 Christian couples and children recruited via churches and schools                                         |
|                              | Han, M.R. & Kim, J.C.(2005)               | No detailed info | 20 Christian and 20 non christian couples                                                                      |
| Family functioning           | Lee, J.S.(2014)                           | Purposive        | 343 Christian couples with children recruited via medium- and large-sized churches                             |

1) Descriptive research, 2) Qualitative research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4편은 모두 양적연구로서 기독교 중·고등학생이나 기독교 모와 중·고등학생 자녀의 혼합 표본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들은 서울의 1개 교회(박인곤, 2007), P시의 여러 교회들(오태균·권재기, 2011; 이영희·박준하, 2011), 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사역자가 담당하는 교회들(조혜정, 2015)에서 표집하였다.

부모역할과 양육에 대한 연구들은 유아자녀의 불교인 부모(김혜순, 2007)나 모(김경희·이복순, 2009; 김혜순, 2009; 황옥자, 2009), 유아자녀의 기독교인 부모(정갑순, 2004; 신승범, 2012), 초등생 자녀의 기독교인 부모(정인숙·장은정, 2012), 영·유아·초·중등학생 자녀의 기독교인 모(정희정, 2013), 영유아-청소년 자녀의 기독교인 부모(김성원, 2015), 유아자녀의 천주교인 모(박애경, 2016), 초·중·고등생 자녀의 기독교인 부(배은주, 2016)를 표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한 개 혹은 여러 지역의 교회, 교회기

관, 불교기관, 성당, 학교 등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질적연구 2편은 서울시의 3개의 유치원에서 기독교인 유아기자녀 모(정희정, 2011)와 이음부모교육프로그램과 상담을 마친 청소년기 자녀 모(이수희, 2005)를 연구하였다.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양적연구들은 중·고등학생(전요섭, 2007a), 고등학생(전요섭, 2007b), 성인 기독교인(이현경, 2008), 이혼고려 중인 기독교·천주교 성인남녀(유향순·송정아, 2009)를 표본으로 하였고, 각각 캐나다 벤쿠버, 서울·안양의 고등학교, 서울과 안양의 중·고등학교, 미국 플로리다와 서울의 가족서비스 기관, 전국의 이혼법률상담소, 쉼터 및 상담소에서 표집하였다. 질적연구 한 편은 연구자가 속한 교회의 재혼가정 부모와 청소년(김형민·이은경, 2016)에서 표본을 선정하였다.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양적연구들은 10개 시의 기독교부부와 자녀(변경애·김순옥, 2001)와 K시의 기독교와 비기독교 부부(한미령·김종철, 2005)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이준선, 2014)는 유자녀 기독교인 부부표본을 서울, 경기, 대전에서 추출하였다.

#### (4)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종교성을 측정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도입하여 가족형성 준비나 가족생활 관련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양적연구가 24편, 종교가 가족형성 준비나 가족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한 질적연구가 10편이었다. 비종교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연구가 5편, 변수 간의 관계를 살피지 않은 실태조사가 2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양적연구들은 종교유형, 종교활동 참여 정도, 본인이 평가한 종교성의 정도, 종교적 신념에 대한 믿음의 정도, 종교·신앙 몰입동기, 영성 등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종교성을 파악하였고, 질적연구들은 기독교 교리 해석과 수용방식, 종교·신앙·영성의 역할로 종교를 연구하였다.

종교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도입한 24편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수들과 측정도구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N=5)를 제외한 19편의 양적연구들에서 종교성은 단일문항, 저자가 구성하거나 기존 문항들을 수정한 문항들, 다차원 척도로 측정되었다. 10편의 연구들에서 종교성이나 영성이 다차원 척도로 측정되었고, 6편의 연구들에서 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5편의 연구가 명목척도, 한 편의 연구가 서열척도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나머지 3편의 연

구들에서 종교성은 저자가 구성하거나 수정한 다문항들로 측정되었다.

Table 3 Measurements of religiosity or spirituality in quantitative research (N=24)

| Areas                             | Authors                       | Independent or Mediating Variables                                                                                                                                                       | Measurements                                                                           |
|-----------------------------------|-------------------------------|------------------------------------------------------------------------------------------------------------------------------------------------------------------------------------------|----------------------------------------------------------------------------------------|
| Marriage preparation              | Kim, K.Y. & Chung, H.H.(2011) | Christian-based marriage program                                                                                                                                                         |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
|                                   | Han, N.C.(2012)               | Type of religion, Frequency of religious participation, other religious participation, and prayer, Self-assessed religiosity, Intrinsic & Extrinsic religiosity, Religious exclusiveness | 1 item for each variable                                                               |
|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 Kim, D.I. & Song, W.Y.(2011)  | Spiritual satisfaction                                                                                                                                                                   | Spiritual Satisfaction Items from Kim et al.'s Korean ENRICH Inventory(2009), 10 items |
|                                   | Cho, H.J.(2012)               | Faith maturity                                                                                                                                                                           | Modified version of Lee's Faith Maturity Assessment Scale(2009), 45 items              |
| Parent-child relationship         | Oh, T.K. & Kwon, K.K.(2011)   | Mother's religious participation with children at home, Children's religious participation with mother at home                                                                           | 3 items & 2 items the authors created                                                  |
|                                   | Lee, Y.H. & Park, J.H.(2011)  | Repentance, Salvation, Christian faith, Parental faith, Church attendance                                                                                                                | 1 item for each variable                                                               |
|                                   | Cho, H. J.(2015)              | Faith maturity                                                                                                                                                                           | Modified version of Hwang's The Shepard Scale(2011), 30 items                          |
|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 Kim, H.S.(2007)               |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br>Practice of Buddhism                                                                                                                            | 32 items & 29 items the author created                                                 |
|                                   | Kim, K.H. & Lee, B.S.(2009)   | Mindfulness                                                                                                                                                                              | Park's Mindfulness Scale(2006), 20 items                                               |
|                                   | Kim, H.S.(2009)               |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                                                                                                                                                    | Kim's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2006), 38 items                            |
|                                   | Hwang, O.J.(2009)             | Buddhism-based parent education                                                                                                                                                          |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

<continued>

| Areas                        | Authors                      | Independent or Mediating Variables | Measurements                                       |
|------------------------------|------------------------------|------------------------------------|----------------------------------------------------|
|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 Jeon, J.S.(2007a)            | Christian faith                    | 1 item                                             |
|                              | Jeon, J.S.(2007b)            | Christian faith                    | 1 item                                             |
|                              | Yoo, H.S. & Song, J.A.(2009) | Intrinsic & Extrinsic religiosity  | Allport & Ross(1967)' s I/E religiosity, 20 items  |
|                              | Chang, S. & Kim, S.A.(2012)  | Christian-based healing program    |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
| Family relationships         | Byun, K.A. & Kim, S.O.(2001) | Religious participation            | 40 items the author modified using various scales  |
|                              | Han, M.R. & Kim, J.C.(2005)  | Christian faith                    | 1 item                                             |
| Family functioning           | Lee, H.S.(2014)              | Spiritual maturity                 | Ellison's Spiritual Maturity Index, 30 items(1983) |

각 연구 영역 별로 사용된 종교성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형성 준비 영역의 양적연구들은 종교유형, 종교활동 참여 정도, 본인이 평가한 종교성, 종교적 신념에 대한 믿음의 정도, 종교·신앙 몰입동기로 종교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종교유형은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한내창, 2012: 140).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세 가지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응답은 월평균빈도로 환산되었다. 공적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불공 또는 예배드리러 가십니까?”, 기타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현재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 교회, 성당, 절 등에서 하는 모임이나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기도빈도를 “귀하는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한내창, 2012: 140)로 측정되었다. 한 편의 연구가 기독교 결혼준비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로 종교활동 참여를 파악하였다(김광률·정현희, 2001). 그리고 본인이 평가한 종교성은 “귀하는 얼마나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믿음의 정도는 “귀하의 견해는 ① 어떠한 종교에도 특별한 진리는 없다 ② 대부분의 종교는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③ 오직 한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한내창, 2012: 140)로 측정되었다. 또한 종교·신앙의 몰입 동기는 본질적 및 비본질적 종교성으로 측정되었는데, 각각을 위해 “나에게는 오직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다.”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① 내적 평화와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②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된다. ③ 어렵거나 슬플 때 위안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④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한내창, 2012: 140)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한편, 질적연구는 종교가 참여자들의 이성교제, 결혼가치관, 사회관계에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파악하였다(우원규·김수연, 2015).

결혼과 부부관계 연구들 중 양적연구들은 종교성을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믿음의 정도나 영성으로 파악하였고, 질적연구들은 신앙체계의 수용, 종교·신앙의 중요성, 사모 역할, 자원으로서 종교·영성으로 종교를 접근하였다. 양적연구들은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디다케, 게이투르기아, 디아코니아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신앙성숙 척도(조혜정, 2012)와 한국판 ENRICH 척도 중 영적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김덕일·송원영, 2011)을 사용하였다. 질적연구들은 기독교 교리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방식(이수인, 2007; 심은정, 2014), 건강한 부부관계에 기여하는 요인들로서 신앙의 역할(김경진, 2011), 사모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겪는 심리적·역할 갈등(김애란·유혜옥, 2013; 오정미·조성희, 2016), 영적자원(백정미, 2014)에 대해 탐색하였다.

부모자녀관계 연구들은 연구대상자들의 종교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앙활동의 정도와 종교적 신념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을 도입하였다. 모가 가정에서 하는 자녀를 위한 신앙 활동과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신앙활동으로 구성된 신앙활동 척도(오태균·권재기, 2011), 인지적, 정의적, 의지적 신앙성숙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신앙성숙 척도(조혜정, 2015)가 도입되었다. 또한 회개여부, 구원여부, 신급(유아세례, 세례, 세례 무), 부모신앙(부모양쪽, 부모한쪽, 부모신앙 없음), 교회출석(월 8회 이상, 월 4-7회, 월 1-3회) 등으로 측정된 종교성 변인들이 사용되었다(이영희·박준하, 2011).

부모역할과 양육에 대한 양적연구들은 불교인 부모, 기독교인 부모, 천주교인 부모의 종교성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 종교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다차원 척도나 단일문항을 도입하거나 종교유형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종교성향과 영성을 측정하는 다차원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불교인 부모들의 종교성은 저자가 제작한 교리에 대한 이해도, 수행에 대한 이해도, 문화·관습적 이해도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불교사상 이해도 척도(김혜순, 2007), 저자가 제작한 계와 정으로 구성된 신행행할 척도(김혜순, 2007), 탈중심적 주의, 비판단적 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으로 구성된 마음챙김 척도(김경희·이복순, 2009)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부모들의 영성은 불안, 과장하기, 실제 그대로 받아들임, 실망, 인상주기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영성평가 척도(신승범, 2012)로, 천주교 부모들의 신앙성숙은 교리충실도, 신앙과 생활의 일치도로 구성된

신앙성숙도 척도로 파악되었다(박애경, 2016). 또한 기독교인 부의 종교적 안녕감은 종교적 안녕감 척도(배은주, 2016)로 측정되었다. 이밖에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신앙경력(20년 미만, 10-29년, 30-39년, 40년 이상, 모태신앙), 교회직분(무, 집사, 안수집사, 권사, 목회자/사모, 기타), 신앙정도(좋지 않음, 좋은편 아님, 보통, 좋은편, 매우 좋음), 부부신앙(부부기독교인, 부만 기독교인, 모만 기독교인, 기타)이 사용되었다(김성원, 2015).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들은 종교 기반 프로그램의 참여(황옥자, 2009, 정인숙·장은정, 2012; 정희정, 2013)로 종교성을 측정하였다. 질적연구들은 양육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신앙의 역할(이수희, 2015)과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있어 기독교부 모교육의 방향(정희정, 2011)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연구들 중 양적연구들은 기독교 신앙의 유무(전요섭, 2007a, 2007b),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유향순·송정아, 2009), 기독교 전인격 프로그램 참여(장선·김순안, 2012)로 종교성을 측정하였고, 질적연구는 재혼적응에서 자원으로써 신앙의 역할로서 종교(김형민·이은경, 2016)를 탐색하였다.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들은 종교활동의 참여 정도와 기독교 신앙의 유무로 종교성을 측정하였다. 종교활동 참여는 교회중심 종교 활동과 가정중심 종교 활동으로 구성된 종교활동 척도(변경애·김순옥, 2011)로, 신앙 유무는 기독교 신앙의 유무(한미령·김종철, 2005)로 파악되었다.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는 다차원척도인 영적성숙도 척도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이준선, 2014).

한편 비종교변수를 사용하여 종교인 가족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연구들은 결혼예비 집단상담 프로그램(경동진·조윤옥, 2014), 자아상태(서동진, 2005), 원가족건강성과 갈등대처행동(김승희·김은영, 2014), 인터넷 사용동기(박인곤, 2007), 가족스트레스(이현경, 2008)를 예측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태조사로 통일교인들의 배우자선택(문선애, 2012)과 기독교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정갑순, 2004)가 있다.

## 2. 종교와 가족에 대한 연구들의 주요 연구결과

### (1) 가족형성 준비

종교유형은 미혼 청년들의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선문대학교 재학 중인 통일교 학생들에게 동질혼의 선호도는 높았는데, 실태조사에 참여한 80명의 학생 중 67.5%가 배우자는 종교적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77.5%가 통일교 내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문선애, 2012). 종교유형 별 종교적 동질혼의 선호도는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일정 정도 종교적 신념이 있는 24명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미혼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 연구에서도 탐색되었다(우원규·김수영, 2015). 기독교 미혼 여성들은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남성의 가족의 종교성까지 고려하였다. 반면 천주교와 불교 여성들은 타종교라 할지라도 자신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남성이라면 결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종교유형, 종교적 신념에 대한 믿음의 정도, 종교활동의 정도나 종교성향은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영향을 미쳤다. 확률표집법을 통해 추출한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482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한내창, 2012)에서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는 종교 집단 내에서 종교활동 참여 정도, 본질적·비본질적 종교성, 종교적 배타성 등의 종교성 변수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불교인 집단에서는 종교성 변수들과 통제 변수들 모두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천주교 집단에서는 본질적 종교성만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기독교 집단에서는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본질적 종교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종교적 배타성이 높을수록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들에게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미혼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결혼 준비 프로그램은 이들의 결혼준비도와 관계적 성숙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기독교적 원리를 적용한 결혼 준비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전의 6쌍의 예비부부들은 참여하지 않은 6쌍의 예비부부들에 비해 사전·사후·추후 시기의 기독교적 성숙도의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김광률·정현희, 2001). 그리고 비기독교 결혼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명의 기독교 미혼 청년들

은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사전·사후 시기의 결혼준비도와 자기개념의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경동진·조운옥, 2014).

## (2) 부부관계

영성과 종교성은 여성이나 부부가 지각한 관계만족, 관계능력,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독교인 부부의 관계역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먼저 영성과 부부관계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 중 ENRICH 검사를 받은 20대 이상 기독교인 부부 815쌍의 연구에서 영적 만족도는 부부관계 만족도, 이혼고려 및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었다(김덕일·송원영, 2011). 영적 만족도의 수준이 높은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부부관계에 더 만족하였는데, 성격문제, 의사소통, 갈등해결, 재정관리, 여가활동, 성관계, 자녀 양육, 가족친구, 역할관계, 커플친밀, 가족친밀, 커플유연, 가족유연 모든 부부의 영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영적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이혼고려도 낮았고, 가정폭력의 발생도 적었다. 또한 영성은 기독교인 부부의 관계능력에도 영향 미쳤는데, 신앙생활이 10년 이상인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10쌍의 기독교인 부부에게 영적 자원은 부부의 관계능력의 4가지 요소인 서로를 수용하는 능력,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갈등대처 능력에 관여하면서 부부관계의 특성과 역동(성장추구형 부부, 극복노력형 부부, 성장필요성 부부, 갈등 지속형 부부)을 형성하였다(백정미, 2014). 한편 종교성과 부부관계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 중 228명의 기독교 중년 여성리더들에 대한 연구에서 신앙성숙도의 5가지 하위요인 중 케리그마(믿음 공동체 속에서의 말씀)와 디아코니아(공동체 내에서의 섬김과 봉사)가 부부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정, 2012). 그리고 교역자 아내들의 부부적응에 대한 질적연구(오정미·조성희, 2016)에서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부부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사모역할에서 벗어나 남편과 영적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균형 잡힌 목회자 부부모델의 부재, 목회자 아내의 삶이 고되고 힘들, 남편에 대한 실망과 갈등이 생김, 갈등대처방식의 미숙함”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앙을 통한 치유와 회복, 남편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 변화를 위한 노력, 및 남편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확신”을 통해 교역자 아내로서의 어려운 삶에 적응하고 있다(오정미·조성희, 2016: 222). 그리고 기독교, 불교, 천주

교 중년기 부부의 혼합표본 자료에서 신앙은 행복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김경진, 2011).

종교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부교역자 아내에 대한 질적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들은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과 부교역자의 아내라는 특수한 역할로 인해 심각한 혼돈과 갈등을 겪었다. 부교역자의 아내들은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부교역자 남편으로 인해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혼자 챙겨야 하지만 어려움을 남편에게 호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김애란·류혜옥, 2013).

기독교의 가부장적 교리와 신앙체계는 기혼 여성들의 부부평등 의식과 실천이나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작용하였다. 종교성이 깊은 15명의 중산층 대졸 기독교 여성들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해석은 남편 우위형, 혼합형, 실질적 평등형의 부부평등 유형에 따라 달랐다(이수인, 2007). 남편 우위형과 혼합형 부부관계의 여성들은 신앙을 삶의 가부장적 실재와 이에 대한 인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반면 실질적 평등형 부부관계의 여성들은 교리체계를 부분적으로 거부하거나 편의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삶에 통합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부장적 교리는 부부평등성 인식과 실천뿐 아니라 아내로서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2명의 기혼여성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통한 현모양처상의 내면화, 영적 경험을 포함하여 자신이 겪었던 사건들,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가부장적 질서를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기대와 태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형성된 결혼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결혼생활에서 변화되는데, 이들은 교회에서 강조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범적인 아내 상과 사회문화적으로 대두되는 행복한 아내 상을 통합하면서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심은정, 2014).

한편 자아상태와 원가족 건강성 및 갈등대처행동과 같은 비종교변수들이 기독교인 부부의 결혼만족과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탐색되었다. 중년기 기독교 부부 138쌍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서 자아상태는 비판적 아버지 자아, 양육적 아버지 자아, 어른 자아, 순응적인 어린이 자아로 분류되었는데,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자아상태가 매우 높거나 낮은 집단에서 결혼불만족과 갈등이 높았다(서동진, 2005). 또한 결혼 7년 미만의 신학생 부부 100쌍에게 원가족 건강성과 대처방식은 결혼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김승희, 김은영, 2014). 아내와 남편 모두 원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결혼적응 수

준이 높았다. 그리고 남편이 외부도움요청을 사용하고, 회피방법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았고 아내의 대처방식은 결혼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가족에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았다.

### (3) 부모자녀관계

종교성의 측정방법과 자료 분석방법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갈등, 부모자녀 관계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이 규명되었다. 292명의 기독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의사소통을 탐색한 연구에서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회개여부, 구원여부, 신급, 부모신앙의 여부, 교회출석 정도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서 차이가 나타났다(이영희·박준하, 2011). 자녀의 회개유무는 부와의 의사소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회개를 한 집단에서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높았고 폐쇄적 의사소통이 낮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집단에서 부모 모두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높았고, 폐쇄적 의사소통이 낮았다. 신급(유아세례, 세례, 세례 무)에 따라 부와 모 모두와 개방적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사후검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의 신앙(부모양쪽, 부모 한쪽, 두 분 신앙 없음)에 따라 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양쪽이 신앙이 있는 집단이 신앙이 없는 집단보다 개방적 의사소통이 높았다. 교회출석(월 8회 이상, 월 4-7회, 월 1-3회)에 따라 부와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종교성과 부모자녀갈등에 대한 연구에서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종교성 변수들은 기독교 중·고등학생의 부모와의 갈등에 영향 미쳤다(조혜정, 2015). 신앙경력이 주일학교 5년 이하인 청소년 집단이 모태신앙이나 주일학교 5년 이상인 집단 보다 생활규칙과 영상매체 영역에서 모와의 갈등이 높았고, 주일학교 5년 이하가 모태신앙과 주일학교 5년 이상 집단보다 생활규칙과 학업진로 영역에서 부와의 갈등이 높았다. 한편 중·고등학생 자녀와 모 145쌍에게 수집한 자료로 신앙활동과 자녀와 모가 인지한 모-자녀 관계만족도의 관련성을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에 기초해 분석한 연구에서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는 관계만족의 하위영역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오태균·권재기, 2011). 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대방의 신앙활동 보다 본인의 신앙활동이 모-자녀 관계의 심리내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모의 신앙활동은 자신과 자녀의 심

리외적 만족에 영향 미치지 않았지만 자녀의 신앙활동은 자녀와 모의 심리외적 만족에 영향을 미쳤고 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또한 모의 신앙활동은 자녀가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 보다 자신이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고, 자녀의 신앙활동은 자신이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보다 모가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비종교 독립변수를 도입한 연구에서, 187명의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정보추구나 환경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동기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오락 및 시간 때우기와 개인 및 대인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동기는 부모와의 소극적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박인곤, 2007).

#### (4) 부모역할과 양육

부모의 종교성과 부모역할 간의 관련성은 경상북도와 충청도 소재 유아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유아기 자녀의 불교인 모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는 아동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부에 대한 연구들에서 규명되었다. 먼저 불교인 모의 종교성은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로 측정되었는데, 신행생활은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는 종교적 수행을 의미한다(김혜순, 2007). 이 연구에서 불교사상이해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부모역할만족도의 점수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신행생활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부모역할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고 높은 집단에서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아동기 자녀를 둔 기독교 아버지들의 아동기 때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적 안녕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배은주, 2016), 관계경험은 종교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종교적 안녕감은 부모역할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아동기 때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한편 부모양육에 대한 연구들은 종교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불안, 양육태도, 기독교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 부모효능감, 자녀양육스타일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먼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결과변수로 한 연구들은 부모의 종교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거나 종교기반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마음챙김 수준은 종교가 있는 모에게서 높았고, 모의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

스가 낮았다(김경희·이복순, 2009).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관과 기독교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모의 학습관련 자녀양육스트레스 감소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자녀의 어머니들은 사전·사후시기에 양육스트레스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정인숙·장은진, 2012). 또한 북한이탈 주민 기독교 어머니들이 남한에서 겪는 심리 내면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 및 원인을 인식하고 성경적 방식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자녀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자녀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정희정, 2013).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영향 미치는 요소들을 탐색한 연구에서, 모의 기질적 특성, 부모의 내적·외적 욕구 요인, 부모의 건강요인 등의 부모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부간 갈등 요인, 고부간 갈등요인 등의 부모의 대인관계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또래 관계, 자녀의 형제관계요인 등의 자녀의 대인관계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정희정, 2011).

양육불안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종교성과 양육불안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천주교 어머니들에 대한 연구에서 천주교 신앙성숙과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종교기반 부모교육과 상담의 참여는 기독교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을 낮추었다. 경기도의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 유아기 자녀의 모 111명의 자료에서 신앙성숙도와 양육불안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박애경, 2016). 기독교인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에 대한 질적연구(이수희, 2015)에서 양육불안을 높이는 요인들로 원가족과의 분화수준이나 분리불안, 모의 완벽주의 성향이나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치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이음부모교육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성경적 상담을 받은 이후 양육불안이 감소되었고, 가족관계도 회복되고 영적 성숙도 이뤄졌다.

한편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불교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불교인 부모들과 영아기자녀의 기독교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경상북도 1곳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불교 어머니들에게 붓다의 수행법인 명상과 사무량심을 불교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접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5개 중 민주적 태도, 의도적 무관심 태도, 및 자율적 태도에서 향상이 있었다(황옥자, 2009). 그리고 유아자녀의 기독교인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온정적이었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11.2%,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함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부



모는 48.5%, 자녀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는 9.9% 등이었다(정갑순, 2004).

이 외에 기독교 양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부모효능감, 양육스타일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기독교인 부모 252명의 기독교양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는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종교성 변수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교회에 출석한 기간이 오래되고, 교회에서 더 많은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직분일수록, 신앙이 좋을수록,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독교인일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및 총점이 높았다(김성원, 2015). 또한 경북 중소도시의 불교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자녀가 있는 불교인 어머니들 172명의 자료에서 불교이해도가 높은 집단에서 양육 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인 전반적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과 전체 효능감에서 높게 나타났다(김혜순, 2009). 그리고 5개 도시 기독교 성결교회 소속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570명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권위형 양육방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자신의 믿음을 과장, 하나님을 불신, 영적인 만족을 잘 못 느끼는 것은 지배형 양육방식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고 나타났다(신승범, 2012).

### (5)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종교와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간의 관련성은 이혼, 재혼, 가정폭력을 겪은 기독교인과 천주교인 가족을 대상으로 종교 변수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원으로서 종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해 탐색되었다. 기독교와 천주교 성인남녀 288명에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 종교성향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대처양식, 분노 및 용서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유향순·송정아, 2009),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에 따라 변수들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었다. 외재적 종교성향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와 용서는 매개효과가 있었지만 갈등대처양식은 그렇지 않았다. 내재적 종교성향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나 용서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갈등대처방식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종교는 적응에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이들은 사랑, 용서, 이해를 중심으로 돌봄과 의사소통 및 영성을 포함한 기독교 전인격적 치유 프로그램을 수강한 이후 자이존중감, 사회적응능력,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장선·김순안, 2012). 한편 자원으로서의 영성과 신앙공동체의 도

음은 기독교 재혼가정의 적응을 촉진하는데 핵심적이었다(김형민·이은경, 2016). 재혼 가정의 어머니들은 이전의 결혼에서 나타났던 외도나 폭행 등의 심각한 부부위기사건들을 재혼 이후에도 경험하였고, 계자녀의 문제와 갈등으로 결혼의 해체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신앙생활을 통한 치료적 관계의 형성으로 재혼적응을 도모하였다.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부모의 권위유형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가족강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복합적이었다. 캐나다 청소년, 캐나다 이민 청소년, 한국 청소년의 신앙유무에 따라 부모의 권위유형과 강인성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전요섭, 2007b).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경우는 캐나다 청소년이,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경우는 캐나다 한인 청소년이 아버지를 독재적이라고 인지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경우 캐나다의 청소년이, 신앙이 있는 경우 한인 청소년이 어머니를 독재적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캐나다 청소년과 캐나다 한인 청소년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경우 가족강인성이 높다고 인지하였고, 한국 청소년들은 기독교 신앙이 있을 경우 가족강인성이 높다고 인지하였다. 서울과 안양의 기독교 중·고등학생 남녀 406명의 자료에서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부모의 권위유형의 영향은 가족 강인성의 하위요인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전요섭, 2007a). 이 연구에서 아버지의 권위유형과 신앙의 유무는 가족강인성의 하위영역인 협동심과 자신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지만 통제감에는 영향 미치지 않았다.

## (6) 가족관계 전반

종교활동이나 기독교 신앙의 유무로 측정된 종교성이 가족관계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었다. 10개 시 30대 이상 기독교 부부와 자녀 1110명에게 수집된 자료에서 종교활동 중 가정중심의 종교활동이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변경애·김순옥, 2001).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정소득, 자아개념의 모델에 교회중심 및 가정중심 교회활동을 추가하여 아내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분석한 모형에서, 아내 모델은 6.3%, 남편 모델은 6.0%의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가정중심 종교활동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활동 변수를 추가해 모자관계를 분석한 모형에서 어머니 모델은 2.5%, 자녀 모델은 2.2%의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가정중심 종교활동은 어머니의 모자관계 만족도와 자녀의 모자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 교회중심 종교활동은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 뿐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모자녀 만족도에 부적으로 영향 미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적가족화 자료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지각이 분석되었는데, K시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10쌍의 부부와 신앙이 없는 10쌍 부부에게 배우자와 자녀의 그림의 크기와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한미령·김종철, 2005).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보다 자녀를 더 크고 좋게 그려 기독교인이 자녀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배우자를 더 크고 좋게 그려 비기독교인이 배우자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여성이 배우자에 대해 평가한 점수보다 남성이 배우자에 대해 평가한 위치점수가 낮아 여성이 남성을 우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7) 가족기능

서울, 경기, 대전의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유자녀 기독교인 부부에게 수집한 자료로 기독교인의 원가족 경험이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성숙도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원가족 경험은 가족기능성에 영적 성숙도를 매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이준선, 2014). 원가족 경험이 가족기능성으로의 직접경로에서 원가족 경험이 좋을수록 가족기능성도 높았고, 원가족 경험이 영적 성숙도로의 직접경로에서 원가족 경험이 좋을수록 영적 성숙도도 높았다. 또한 영적 성숙도에서 가족기능성의 직접경로에서 영적 성숙도가 좋을수록 가족기능성이 높았고, 원가족 경험에서 영적 성숙도를 거쳐 가족기능성으로의 간접경로에서 원가족 경험이 좋을수록 영적 성숙도가 높았고, 영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성도 높았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종교와 가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개관하여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41편의 연구들을 연구영역에 따라 분류하였고, 연구영역 별로 상세 연구주제,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영역 별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한점을 제시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가족형성 준비

가족형성 준비에 대한 연구들에서 종교가 배우자 선택,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 결혼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이 탐색되었다. 종교유형, 믿음의 정도, 종교성향 등에 따라 배우자 선택과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종교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넘어 배우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한내창, 2012). 그리고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결혼준비 프로그램은 기독교적 결혼생활이나 전반적인 결혼생활을 준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들은 표본의 정규성 분포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종교기반 혹은 비종교기반 결혼준비 프로그램이 미혼 청년들의 결혼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분석절차를 엄격히 따르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기독교기반 결혼준비프로그램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준비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의 메타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메타분석연구는 프로그램들의 전체효과 크기 및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효과 변수들, 운영특성(프로그램 회기, 참여한 인원의 수,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등에 따른 효과크기를 파악하게 해 주는데, 이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결혼과 부부관계

종교는 부부관계의 역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독교인 부부들의 영적만족도는 결혼만족도, 이혼고려, 가정폭력 발생에 영향 미쳤고, 기독교인 기혼 여성

의 신앙성숙도는 부부적응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부교역자 아내들에게 역할갈등이나 교역자 아내들에게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천이었지만 갈등해결의 자원이기도 하였다. 또한 종교는 평등의식이 있는 기독교 여성들의 부부관계의 역동이나 아내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강력히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표본과 통계분석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종교가 부부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먼저 영적만족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 영적만족도 수준과 직업군에서 편향이 높은 표본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10편의 연구 중 3편의 질적 및 양적 연구들이 접근이 용이한 대상을 1개 교회나 특정 목적이 있는 모임을 통해 편의표집을 하였는데, 이 표집법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권장되지 않은 표집법이다. 우리나라에서 확률표집에 기초한 대단위 사회조사들 중 종교와 부부관련 문항들을 포함하는 조사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부부관계의 역동이나 상호작용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표본추출의 오류가 연구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부부관계와 종교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왜 특정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나장함, 2012).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질적연구들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이나 종교성이 깊은 여성들을 주로 연구참여자로 하고 있어 다른 사회경제적 맥락의 여성들이나 종교성이 낮은 여성들의 종교와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였다.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아시아계 여성이민자들이 부부관계에서 종교교리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질적연구들(Chan, 2005; Kim, 2010)은 종교경험이 사회경제적 맥락과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연구들에서 사회경제적 맥락과 종교경험과 부부관계의 복잡한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향후 부부관계와 종교에 대한 연구로 최근 서구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적 영성의 한국적 적용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남편·아내·여성 각자의 종교활동 참여 정도나 믿음의 정도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왔는데,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 관계적 종교 변수가 무엇이지를 규명하는 것은 연구뿐 아니라 임상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서구에서 발전된 관계적 영성 관점(Relational spirituality framework)에 기초한 연인·배우자중심 기도(Partner-focused prayers)에 대한 연구들

이 대표적인 예이다. 관계적 영성 관점은 연인·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키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종교적 신념과 행동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Mahoney, 2010, 2013). 연인·배우자중심 기도는 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심리내적 의사소통 과정과 연인·배우자의 안녕감이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를 포함하는 종교 구인이다(Mahoney and Cano, 2014). 서구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연인·배우자 중심 기도의 긍정적 영향이 규명되고 있는데, 미국 대학생들을 표본으로 한 연구에서 연인중심 기도는 관계에의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Fincham and Beach, 2014). 또한 흑인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 중심 기도는 자신의 결혼에의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관계만족도의 부분 매개효과도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중심 기도는 배우자의 결혼에의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배우자의 관계만족도의 완전매개 효과도 검증되었다(Fincham and Beach, 2014). 부부 관계의 적응을 촉진하는 관계적 종교 변수들을 탐색하고, 종교 변수가 결과변수에 영향 미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부부교육이나 부부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에서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측정된 종교성은 중·고등학생 자녀 혹은 중·고등학생 자녀와 부모가 인지한 부모자녀의사소통, 부모자녀만족도, 부모자녀갈등에 미쳤지만, 이 연구들에서 한계점들이 발견되어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접근이 용이한 대상을 1개 교회에서 편의표집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회개유무, 구원여부, 신급, 교회참석 정도, 신앙경력으로 종교성을 측정한 연구들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들이 종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회개유무와 구원여부는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신급의 응답범주를 유아세례, 세례, 세례 무로, 부모신앙을 부모양쪽 신앙, 부모한쪽 신앙, 부모신앙 없음으로, 교회출석을 월 8회 이상, 월 4-7회, 월 1-3회로 나눈 것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모-자녀의 커플 자료를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을 도입한 연구는 의의가 매우 크지

만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교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선정과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연구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도 있었다. 향후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종교성 측정도구의 선정과 연구에 포함되는 변인들의 선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적합한 종교 변인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서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신성화(Sanctification)’는 우리나라의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성화는 인간이 종교적 가르침에 기초해 사물, 시간, 가족관계, 일, 사건, 사람 등에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신성한 가치가 부여된 것은 인간에게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다(Pargament et al., 2005). 기독교에서 자녀를 하나님께 준 선물로 보거나 자녀양육을 부모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신성화의 대표적인 예이다(Bartkowski and Ellison, 1995). 서구에서 신성화를 도입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은 주로 하나님(신)의 임재 척도(Manifestation of God Scale)나 신성화 척도(Sacred Qualities Scale)를 사용해왔다(Pomerleau et al., 2015). 하나님(신)의 임재 척도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표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왔는데, 이는 하나님(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부모자녀관계에서 하나님(신)의 임재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Breslsford and Righi, 2013). 14문항을 7점 응답범주로 측정하는 이 척도는 “하나님은 나와 어머니/아버지/자녀와의 관계에 임재한다.”, “나는 나의 어머니/아버지/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와 같은 문항들을 포함한다(Breslsford and Righi, 2013). 또한 신성화 척도는 부모자녀관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을 내포하는지를 평가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거룩한-거룩하지 않은’, ‘영적-세속적’, ‘기적 같은-생물학적’과 같은 형용사 짝으로 응답내용을 제시하고 7점 척도로 정도를 파악한다(Murray-Swank et al., 2006). 향후 하나님의 임재척도나 신성화 척도와 같이 이론과 실증연구들을 통한 검증에 기초한 종교성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자녀관계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시도들은 종교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4편의 연구들 중 3편이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에서 종교의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들도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부모자녀 간 갈등이 높다는 점에서 부모가 부

모자녀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종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종교성은 부모자녀 갈등, 의사소통, 만족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종교의 역할을 심도깊게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4. 부모역할과 양육

종교와 부모역할과 양육에 대한 연구들은 영유아기 자녀 부모들이나 초·중·고등학교 자녀 부모들의 종교성이 부모역할이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종교가 부모역할이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에게 깊이 자리 잡힌 종교성의 정도를 파악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Holden, 2001)에서 다차원 척도로 측정된 신앙성숙, 종교적 안녕감, 신행생활, 불교이해도는 부모양육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주형으로 측정된 종교유형, 신앙경력, 교회직분, 신앙정도와 같은 척도는 부모역할과 양육에서 종교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들 중 통제집단을 포함하지 않고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사전·사후시기의 평균점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결론내리거나 표본의 정규성 분포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분석을 진행한 연구도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문항들을 자의적으로 만들거나, 분석절차를 엄격히 따르지 않은 연구들이 있었다.

불교를 가진 부모들에 대한 연구의 저자들은 직접 구성한 문항들의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타당화 작업을 거친 불교 종교성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종교성 척도는 기독교 문화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정승국, 2014; 한내창, 2001) 불교인의 종교성을 측정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 불교와 같은 동양의 종교들은 기독교와 달리 공적 종교활동이 거의 부재하여 기독교를 기반으로 개발된 종교활동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를 사용할 경우 불교인들의 종교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한내창, 2001; 한국갤럽, 2015). 최근에 정승국(2014)에 의해 개발된 불교 종교성 척도는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였는데, 이 척도는 불교원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신, 해는 불교원리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이, 불교원리에 따른 실천 수행을 의미하는 행, 수행을 통한 궁극적 깨달음을 의미하는 증을 포함한다. 불교 종교성 척도는 향후 불교인들의 가족생활을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향후 신성화를 활용한 연구들은 기존의 자녀양육 연구들에서 나타난 이론의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보이는 자녀의 부모들이나 장애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과 같이 역경에 처한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어떻게 종교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 5.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가족이 위기를 겪을 때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이뤄졌는데, 종교는 기독교 재혼가정, 이혼을 고려 중인 성인남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적응에 도움을 제공하였고, 비록 캐나다 이민 가족의 청소년, 미국 청소년, 한국 청소년의 신앙의 유무와 가족강인성 간의 관련성은 다소 복잡적이었지만 종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유무로 종교성을 측정된 연구들은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표본추출 과정이나 측정도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종교는 가족이 위기를 겪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종교적 자원이나 대처가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은 향후 가족연구에서 종교의 다양한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에서 2년 이상 병원에 입원한 55세 이상 환자들의 건강과 종교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종단 연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현재의 역경을 하나님의 체벌로 인식,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인지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대처방식은 사망률을 예측하였다. 또한 인구학적 변수들과 의료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방식은 사망률의 위험을 22-33% 높였다(Pargament et al., 2001). 이는 종교가 인간의 삶에 오히려 고통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Pargament et al., 2005).

종교는 인간이 곤혹스러운 생애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한내창, 2001).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종교에서 강조하는 믿음이나 소망을 갖거나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앙공동체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는 것 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Pargament, 1997). 종교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위기 시 핵심적인 자

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들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탐색한 재혼, 이민, 폭력과 같은 가족사건 이외에도 가족원의 사망, 질병, 부모기로의 전이, 장애, 실직, 재해, 중독, 심각한 부부갈등, 자녀의 문제행동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역경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종교와 가족연구에 한 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6. 가족관계 전반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들은 종교와 가족관계만족도와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변경애와 김순옥(2001)의 연구는 대규모의 표본으로 교회중심 종교활동과 가정중심 종교활동을 포함하여 종교활동을 측정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종교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종교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의 탐색을 통해 종교의 복합적인 역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 가르침은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도모하지만,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수용방식은 다양한 가족관계의 양상이나 특성을 가져온다(Mahoney, 2005). 가정폭력에 대한 서구 연구들에 의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나 배우자는 종교적 가르침을 자신의 병리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Mahoney and Tarakeshwar, 2005), 복음주의 기독교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종교적 교리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 결혼을 유지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기도 한다(Nason-Clark, 1997). 종교가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종교와 사회적 맥락과 가족관계의 복잡한 관련성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2016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종교와 가족에 대한 연구논문들의 개관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내적 상호작용과 관계 및 역동과 관련된 가족생활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과 중요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의 상세 연구주제, 표본추출과 표본,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주요 연구결과 등을 고찰함으로써 종교의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러 연구영역들에서 표본추출 방법과 표본의 편향, 종교성 측정도구와 통계적 분석에서의 문제점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종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 동안 다양한 가족생활 영역들의 연구들은 종교는 가족생활을 이해하는데 결코 간과될 수 없고, 가족의 건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향후 종교와 가족 연구들은 좀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탐색과 방법론적인 진보를 통해 전 시대의 연구들이 규명한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한 층 더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경동진·조윤옥 (2014). 기독교청년의 결혼준비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천과 신학**, 41, 353-386.
- [Kyoung, D. J. & Joe. Y. (2014).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ing marital preparation of the christian adolescent. *Theology and Praxis*, 41, 353-386.]
- 김경희·이복순 (2009). 어머니의 마음챙김과 정서안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3(2), 333-362.
- [Kim, K. H. & Lee, B. S. (2009). The effects on breeding stress through the emotional stability and mother's mindfulness. *The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3(2), 333-362.]
- 김광률·정현희 (2001). 기독교인 결혼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상담학연구**, 2(2), 181-196.
- [Kim. K. Y. & Chung, H. H.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arriage prepa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hristian premarital coupl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2), 181-196.]
- 김경진 (2011).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부부관계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9-48.
- [Kim, K. J. (2011). A research on factors contributing to healthy relationships in midlife coupl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1, 9-48.]
- 김동기 (2013). **종교행동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Kim, D. K (2013).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Religious Behavior*. Seoul: Hakjisa.]
- 김덕일·송원영 (2011).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만족과 결혼 만족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49-70.
- [Kim, D. I. & Song, W. Y. (2011). K-Enrich: spiritual power on marriag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1, 49-70.]
- 김성원 (2015).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영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기독교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의 차이. **기독교교육정보**, 45, 27-49.
- [Kim, S. W. (2015). Difference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perceptions of Christian parenting and parenting practices through parental and spiritual variable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5, 27-49.]
- 김승희·김은영 (2014). 신학생 부부의 원가족 건강성 지각과 갈등대처행동이 결혼

-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4), 79-102.
- [Kim, S. H. & Kim, E. Y. (2014). The effect of seminary student couples' family origin and coping behaviors on marita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5(4), 79-102.]
- 김애란·류혜옥 (2013). 교회 부교역자 아내의 역할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2), 35-74.
- [Kim, A. R. & Rhew, H. O. (2013). A qualitative study on the role conflict of assistant pastor's wif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4(2), 35-74.]
- 김형민·이은경 (2016).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적응과정 연구: 기독교인 재혼가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2), 243-269.
- [Kim, H. M. & Lea, E. K. (2016). Study on the parents of remarried families and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ir teenage children: focusing on Christian remarried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2), 243-269.]
- 김혜순 (2007). 신행의 이사가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찰 소속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5, 171-188.
- [Kim, H. S. (2007). The effects of practice of Buddhism on parenting satisfaction: centered on mothers whose children were enrolled in temples' kindergarte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5, 171-188.]
- 김혜순 (2009). 집착정도와 불교 이해도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불교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53, 359-388.
- [Kim, H. S. (2009). The effects of the levels of clinging and the understanding of Buddhism on their parenting efficacy: centered on mothers whose preschoolers were enrolled in Buddhist Kindergarten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53, 359-388.]
- 나장함 (2012). 교과교육과 수업 연구에서 질적 접근: 질적 연구 샘플링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53, 75-105.
- [Na, J. H. (2012). A review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cusing on sampling strategies for educational research. *Education Research*, 53, 75-105.]
- 문선애 (2012). 통일교 축복가정자녀의 배우자선택 유형변화와 그 의미. **신종교연구**, 26, 269-288.
- [Moon, S. A. (2012). Pattern change and its meaning of spouse choice by the children of the blessed families of the unification. *Journal of New Religions*, 26, 269-288.]
- 박애경 (2016). 카톨릭신자 어머니의 신앙성숙도와 양육불안 간의 관계연구. **유아**

- 교육학논집, 20(5), 467-484.
- [Park, A. K. (2016).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xiety and spiritual maturity with Catholic mot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5), 467-484.]
- 박인근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실태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실태 상관관계 분석. **기독교교육정보**, 16, 207-230.
- [Park, I. K.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ge of adolescents and Korean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style.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6, 207-230.]
- 배은주 (2016). 아동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기능에 미치는 영향: 종교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1(2), 125-147.
- [Bae. E. J. (2016). The effect of Christian father's Childhood experiences and parental intelligence: mediating effects of religious well-being. *Faith & Scholarship*, 21(2), 125-147.]
- 백정미 (2014). 기독교인 부부관계요인과 영적자원의 역동적 상호작용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103-134.
- [Paik, J. M. (2014). A research on interaction of spiritual resource and relational factors in Christian marital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5(3), 103-134.]
- 변경애 · 김순옥 (1999). 가족연구에 나타난 종교변인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07-129.
- [Byun, K. A. & Kim, S. O. (1999). A review of religious variables in family studies: focus on Home Economic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4(2), 107-129.]
- 변경애 · 김순옥 (2001). 개신교 기혼여성의 종교활동이 가족원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33-49.
- [Byun, K. A. & Kim, S. O. (2001). The effect of protestant married women's religious activity on family members' relational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19(5), 33-49.]
- 서동진 (2005).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기독교인들의 결혼불만족과 자아상태에 대한 연구. **상담학연구**, 6(2), 645-664.
- [Seo, D. J. (2005). A study on marital distress and ego-gram of Christian middle age couples with adolescent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6(2), 645-664.]
- 송현동 (2008). 가족구성원의 종교분포가 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 상제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0, 77-97.
- [Song, H. D. (2008). The effects of distribution of religions of family make-up upon family conflict. *Studies in Religion*, 50, 77-97.]
- 신승범 (2012). 부모의 관계적 기독교 영성과 그들의 자녀 양육방식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0, 317-343.
- [Shin, S. B.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al christian spirituality and parenting styles among evangelical Korean christian parent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0, 317-343.]
- 심은정 (2014). 30대 기독교인 여성의 결혼여정에 대한 사례연구: 심리사회영역의 역동적 만남.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135-165.
- [Shim, E. J. (2014). Two Christian women's marital journey from psychosocial perspectiv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5(3), 135-165.]
- 오정미·조성희 (2016). 목회자 아내의 부부 적응에 관한 심리적 현상연구: 부부 적응도가 높은 중년기 목회자 아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1), 197-230.
- [Oh, J. M. & Cho, S. H. (2016). The effect of narrative therapy on adolescent drop out crisi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7(1), 197-230.]
- 오태균·권재기 (2011). 신앙활동을 통한 의사소통이 모-자녀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층모형을 이용한 해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의 적용. *기독교교육정보*, 28, 191-223.
- [Oh, T. K. & Kwon, J. K. (2011). The effect of relational satisfaction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by communicating through spiritual activity: the application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using multi-level model.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8, 191-223.]
- 우원규·김수연 (2015). 배우자 선택시 고려하는 종교의 의미: 종교활동을 하는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 101-125.
- [Woo, W. K. & Kim, S. Y. (2015). Mate selection considering religion mainly with women who is participating in religious activity. *Family and Culture*, 27(3), 101-125.]
- 유향순·송정아 (2009). 종교성향에 따른 분노와 용성 및 갈등 대처양식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8, 141-186.

- [Yoo, H. S. & Song, J. A. (2009). The effect of anger, forgiveness and conflict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religiosity on divorce inten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8, 141-186.]
- 이수인 (2007). 부부평등에 대한 인식과 실제의 재구성, 신앙의 수용방식과 역할: 보수주의 개신교 여성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4), 1-44.
- [Lee, S. I. (2007). Reconstruction of the perception and reality of conjugal equality, the accepted ways and role of belief: based on conservative protestant women. *Family and Culture*, 19(4), 1-44.]
- 이수희 (2015). 부모교육과 기독교상담 관점에서 본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복음과 상담*, 23(2), 255-289.
- [Lee, S. H. (2015). Qualitative case study of mothers' anxiety on parenting based on parenting education and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3(2), 255-289.]
- 이영희 · 박준하 (2011). 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189-210.
- [Lee, Y. H. & Park, J. H. (201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image of God which perceived by Christian youth according to the faith-related variation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1, 189-210.]
- 이은혜 · 이미리 · 박소연 (2006). *아동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Lee, E. H., Lee, M. R. & Park, S. Y. (2006). *Research methods for child studies*. Seoul: Hakjisa.]
- 이정덕 · 전미경 (1995). 가족내 종교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99-213.
- [Lee, C. D. & Jun, M. K. (1995). A study for the religious conflict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4), 199-213.]
- 이준선 (2014). 기혼 기독교인의 원가족 경험이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영적 성숙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1), 157-195.
- [Lee, J. S. (2014). Effects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of married christians on family functioning with spiritual maturity as a parameter variabl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5(1), 157-196.]
- 이현경 (2008). 한국 기독교 문화권 가족의 스트레스와 적응연구: a test of causal model. *상담학연구*, 9(1), 295-304.



- [Lee, H. K. (2008). Family stresses and adjustment of Korean Christian cultural families: a test of causal model.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1), 295-304.]
- 전요섭 (2007a). 청소년의 아버지 권의유형과 기독교 신앙에 따른 가족강인성. **청소년학연구**, 14(1), 189-212.
- [Jeon, J. S. (2007b). Family hardiness by fathers' authority style & the Christian faith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Studies*, 14(1), 189-212.]
- 전요섭 (2007b). 캐나다 청소년, 캐나다 한인 청소년 및 한국 청소년 간 부모권위 유형 인식 및 기독교신앙 상태에 따른 가족강인성. **청소년학연구**, 14(2), 139-165.
- [Jeon, J. S. (2007a). Family hardiness by parental authority and the Christian faith of Korean adolescence, Korean adolescence in Canada, and Canadia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2), 139-165.]
- 정갑순 (2004). 기독교가정 영·유아 부모자녀 양육에 대한 실태조사. **유아교육학논집**, 8(3), 171-203.
- [Chung, K. S. (2004). A study on investigation of parents hav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Christian famil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8(3), 171-203.]
- 장선·김순안 (2012). 기독교 원리를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신앙과 학문**, 17(3), 245-269.
- [Chang, S. & Kim, S. A. (2012).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self esteem, social adjust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of female family violence victims. *Faith & Scholarship*, 17(3), 245-269.
- 정승국 (2014). 불교적 종교성 척도 개발 연구. **불교학연구**, 41, 217-242.
- [Jung, S. G. (2014). Development of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Buddhist religiosity, *Journal for Buddhist Studies*, 41, 217-242.]
- 정인숙·장은진 (2012). 학습관련 자녀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독서활동 중심의 기독교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예비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3), 203-237.
- [Chung, I. S. & Chang, E. J. (2012).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 program for Christian parents to decrease learning-related parenting stress focused on reading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3(3), 203-237.]
- 정희정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본

-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 연구. **신앙과 학문**, 16(4), 195-222.
- [Chung, H. J. (2011). A study on directions of the christian parent education through the child care stress of christian mothers having children in early childhood. *Faith & Scholarship*, 16(4), 195-222.]
- 정희정 (2013).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2), 135-171.
- [Chung, H. J.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christian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North Korean defectors. *Faith & Scholarship*, 18(2), 135-171.]
- 조혜정 (2012). 기독교 중년 여성의 신앙성숙이 삶의 질과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교육정보**, 32, 97-122.
- [Cho, H. J. (2012). The effects of Christian midlife women's faith maturity on marital adjustment and quality of life.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2, 97-122.]
- 조혜정 (2015). 청소년의 자율성 관련 부모 갈등과 신앙성숙과의 관계. **기독교교육정보**, 47, 27-53.
- [Cho, H. J.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hildren conflicts on autonomy and faith maturity.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7, 27-53.]
- 한국가족상담연구소 (2013). **변화하는 사회의 가족학**. 서울: 교문사.
- [Korean Family Counseling Institute (2013). *Family Studies*. Seoul: Kyomunsa.]
- 한국가족학연구회 (1999). **가족학**. 서울: 하우
- [Association for Korean Family Studies (1999). *Family Studies*. Seoul: Hau.]
- 한국갤럽 (2015). **한국인의 종교: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제 5차 비교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Gallup Korea (2015). *The religion of Koreans 1984-2014*. Seoul: Gallup Korea.]
- 한내창 (2001). 우리문화에서 I/E 및 기타 종교성 척도. **한국사회학**, 35(6), 193-215.
- [Han, N. C. (2001). Evaluation of I/E and other religiosity measur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5(6), 193-215.]
- 한내창 (2007). 종교와 성태도·성행동의 경험적 연구들에 관한 국내외 연구 개관. **종교연구**, 57, 31-55.
- [Han, N. C. (2007). A review of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on the effects of religion on sexual attitude and behaviors. *Studies in Religion*, 57, 31-55.]

- 한내창 (2012). 종교성과 타종교와의 결혼 허용도. *한국사회학*, 46(1), 130-155.
- [Han, N. C. (2012). Religiosity and interreligious marriage permissivenes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1), 130-155.]
- 한미령 · 김종철 (2005). 기독교신자 부부와 비신자 부부의 동적 가족화 특성 비교. *재활심리연구*, 12(1), 135-154.
- [Han, M. R. & Kim, J. C. (2005). The comparison of the KFD characteristic between the Christian and non-Christian couple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2(1), 135-154.]
- 황옥자 (2009). 불교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연구*, 29, 1-17.
- [Hwang, O. J. (2009).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based on Buddhism on mothers' self-concept and their rearing attitud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9, 1-7.]
- Bartkowski, J and C. Ellison (1995). Divergent models of childbearing in popular manuals: conservative protestants vs. the mainstream experts. *Sociology of Religion*, 56, 21-34.
- Brelsfored, G and S. Righi (2013). Grateful and sanctified: exploring the parent-child conflict. *Journal of Family Issues*, 36(12), 1575-1594.
- Chan, C (2005). A self of one's own: Taiwanese immigrant women and religious conversions. *Gender and Society*, 19(3), 336-357.
- Fincham, F. and S. Beach (2014). I say a little prayer for you: praying for partner increases commit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5), 587-593.
- Holden, G (2001). Psychology, religion, and the family: that's time for a reviv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 657-662.
- Kim, S (2010). Korean American women navigating marriage through evangelical Christianit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5), 735-748.
- Mahoney, A (2005). Religion and conflict in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Issues*, 61(4), 689-706.
- Mahoney, A (2010). Religion in families, 1999-2009: a relational spirituality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805-827.
- Mahoney, A, K. Pargament, N. Tarakeshwar. and A. Swank (2001). Religion in the home in the 1980s and 1990s: a meta-analytical review and conceptual

- analysis of links between religion, marriage, and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4), 559-596.
- Mahoney, A. K. Pargament A. Murray-Swank and N. Murray-Swank (2003). Religion and the sanctific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4(3), 220-236.
- Mahoney, A. and N. Tarakeshwar (2005). Religion’s role in marriage and parenting in daily life and during family crises.” in Paloutzian, R. and C. Park. (Ed.) (2005).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New York and London: Guilford Press.
- Mahoney, A. and A. Cano (2014).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family life: delving into relational spirituality for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6), 735-738.
- Murray-Swank, A, A. Mahoney and K. Pargament (2006). Sanctification of parenting: links to corporal punishment and parental warmth among biblically conservative and liberal mother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6(4), 271-287.
- Nason-Clark, N (2013). *The Battered Wife: How Christians Confront Family Violence*. Louisville: John Knox Press.
- Pargament, K (199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Theory, Research,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Pargament, K. H. Koenig, N. Tarakeshwar and J. Hahn (2001). Religious struggles as a predictor of mortality among medically ill elderly patients: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s*, 161, 1881-1885.
- Pargament, K. G. Magyar-Russell and N. Murray-Swank (2005). The sacred and the search for significance: religion as a unique Process. *Journal of Social Issues*, 61(4), 665-687.
- Pargament, K. A. Mahoney, J. Exline, J. Jones and E. Shafranske (2013). Envisioning an integrative paradigm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Pargament, K. (Ed.) (2013). *APA Handbook of Psychology, Religion and Spirituality* (vol 1.): Context, Theory, and Research.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Pomerleau, J. W. Wong, and A. Mahoney (2015). Sanctification: a meta-analytic review. *Newsletter of Division 36, Society for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39(1).

Thomas, D. and Cornwall, M (1990). Religion and family in the 1980s: discovery and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4), 98-992.

Silberman, I (2005). Religion as a meaning system: implications for the new millennium. *Journal of Social Issues*, 61(4), 641-663.

Snarey, J and D. Dollahite (2001). Varieties of religion-family linkag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4), 646-651.

Wiley, A. Wannan, H.B. and Montanelli, D. (2002). Shelter in a time of storm: parenting in poor rural African American communities. *Family Relations*, 51, 265-273.

**논문초록**

##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개관

김성은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종교와 가족에 관한 연구들의 개관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총 41편의 연구논문들이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었고 논문들을 연구영역에 따라 분류하고 영역 별 상세 주제, 표본, 종교가 연구된 방식, 연구결과, 제한점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1)종교의 역할은 가족형성 준비, 결혼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모역할과 양육,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가족관계 전반, 가족기능 영역에서 탐색되었다. 2)표본은 확률표집, 편의표집, 목적표집, 눈덩이표집 등을 통해 추출되었다. 3)종교는 종교유형, 종교활동 참여 정도, 믿음의 정도, 종교·신앙 조직 몰입 동기, 영성 등으로 측정되거나, 교리 해석과 수용방식이나 종교·영성·신앙의 역할로 연구되었다. 4)하지만 표본추출의 문제와 표본의 편향, 부적합한 종교성 척도의 사용, 연구모형의 제한성으로 인해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문헌검토 결과와 서구 논의를 토대로 향후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종교, 영성, 결혼준비, 결혼, 가족**